

체육인 인권보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시, 신속대응 위한 핫라인 신설
조례 신설,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합숙소 거주 의무 아닌 선택 가능

서울시가 체육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이다.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관공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와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공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이 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영된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 후 체육회 감사실 조사나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과 같은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가 이어진다.

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환경과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도 공고히 한다.

시는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 책임·의무를 명문화해 인권 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한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가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 복지 개념으로 전환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된다.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은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의 경우 성적의 비중이 90%에서 50%로 낮아진다.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교육을 펼친다.

시는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과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

인권지킴이 매뉴얼은 체육인들이 폭력, 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숙소, 훈련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도 진행 된다.

/김현정 기자

포스트코로나 대비 中企 R&D 57억 지원

서울시-산업진흥원 추가 지원
과제당 6000만~3억원 제공
모든 절차 신속하게 추진 계획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창업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하반기에 56억7000만원의 연구개발(R&D)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이오 의료, AI 활용 비대면 및 방역 기술,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

의 기술개발이 대상이다. 과제당 6000만~3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중단하지 않도록 공고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 시점은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으로 분야별로 다르다. 일정 등 세부 공고 내용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에 서울시는 415억원 규모의 R&D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접수한 1110개 과제 중 180여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etroseoul.co.kr

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개인 모집

현재 240여개 조직 입주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할 단체나 개인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은평구 녹번동에 문을 연 서울혁신파크는 현재 240여개 사회혁신활동 단체와 지원조직 등이 입주해 있다.

5주년을 맞아 이달 1일 '공유, 소통, 존중, 환경' 등 4대 가치와 16개 실천항목을 담은 '서울혁신파크 문화헌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세부 사업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미래청과 상상청, 참여동, 공유동, 목공동 등 5개 건물 내 공실 45곳과 상상청 내 협업 공간(코워킹 스페이스)이

다. 독립된 공간 규모는 평균 64㎡(20평 내외, 전용면적 기준)로, 공간에 따라 규모가 다양하다. 기본 업무 공간 외에 회의실, 휴게공간, 영상 스튜디오, 제작 공간, 행사장, 연수시설 등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협약 기간은 독립된 업무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이후 재입주 평가를 통해 1년간 연장 가능하다. 협약 공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 뒤 평가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감면 혜택도 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용료의 80%, 서울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30%, 중소·벤처기업은 20% 감면해 준다.

/김현정 기자

옛 서울역과 서울로7017 잇는 보행길 내달 개방

길이 33m 공중보행로 완공
미끄럼 방지 바닥 열선 처리

옛 서울역사 옥상과 서울로7017을 잇는 폭 6m, 길이 33m의 공중 보행로가 오는 10월 완공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옛 서울역사 옥상은 잔디가 깔린 '루프톱'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공동 추진해온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을 이처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로7017에서 공중 보행길을 통해 구(舊)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공중 보행길에는 겨울철 쌓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열선을 매립하고 야간 조명도 설치한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



옛 서울역사와 서울로7017을 잇는 공중보행길 조감도. /서울시

들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된다.

구 서울역사 옥상에는 콘크리트 바닥 대신 잔디가 깔리고 곳곳에 다양한 풀꽃이 심어져 사계절 내내 푸른 공간이 된다. 걸터앉을 수 있는 앉음 벽과 벤치, 장미 터널 등도 설치한다. 이곳의 쉼터 조성은 서울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한다.

운영사인 한화역사는 기존 노후 건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위한 안내시설물도 보완하기로 했다.

옥상과 서울로 사이에 20여년간 방치된 폐쇄 주차 램프 주변으로는 '공중정원'이 조성된다.

/김현정 기자

파주 문산3리지구 재개발 시행계획 인가

파주시는 문산3리지구(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30일에는 금촌새말지구와 문산1-5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파주 문산3리지구는 2008년에 최

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조합이 설립됐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오다 지난 2019년 동문건설(주)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의 불씨를 다시 지켰다.

문산3리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문

산읍 81-61번지 일원 약 4만7천 제곱미터에 지하2층~지상27층의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을 조성하는 규모며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문산3리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로 파주시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개소 중 ▲울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금촌새말지구 ▲문산1-5구역 ▲문산3리지구 5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 캐릭터 ‘포수·포미’ 자유롭게 사용가능”

김포시가 김포시 캐릭터 포수, 포미(사진)의 공공누리 유형을 제3유형으로 변경 적용한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이며, 제1유형~4유형으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



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9일 (수) 음력 : 7월 22일

수도권 날씨 25~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09 | 해질 / 18:49

지역별 날씨: 연천 18/25, 동두천 18/24, 가평 18/24, 파주 17/25, 서울 20/25, 양평 18/25, 수원 19/24, 용인 19/24, 평택 18/25, 백령도 19/24, 인천 21/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